

지역 매아리

고창군, 비전다짐의 날 행사 열어

유기상 고창군수가 전북도민체전 등을 앞 두고 "고창방문의 달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일 고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고창 비전다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기상 군수는 "제16회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연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며 "이를 이어받아 전라예술제(5~12일), 지역도서전(9~12일), 도민체전(10~12일), 바지락축제(18~19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전 다짐의 날 행사 후에는 주용기 생태문화환경연구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생태환경 수도 고창군의 가치와 환경보전 특강'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해상경계 분쟁

현재 결정 성명서 발표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이 부안군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에 만전을 다해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루어진 이번 성명에서 부안군의회는 위도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곱소만 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하여 판결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기존에 불합리한 곱소만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재조정 되면서 곱소만 일부 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임을 밝히면서, 새롭게 편입된 곱소만 해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 편입된 갯벌에서 이용개발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신속하게 안내할 것과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위민행진 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안군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협치된 마음으로 부안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유와 힐링, 행복의 축제'

부안마실축제 내일 개막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부안을 매창공원을 주 축제로 부안군 전역에서 열린다.

부안마실축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면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5월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풍을 주제로, '여유를 찾아 떠나는 마실 여행'을 슬로건으로 치러지며 공식행사와 각종 공연, 체험·전시·참여마당, 부안관광지를 연결하는 부안마실, 특색있는 먹거리, 차별화된 지역특산물 판매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공식행사의 여는마당은 마실축경연대회와 샌드아트, 개막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닫는마당은 마실대동환마당으로 흥겨운 추억의 댄스댄스 등으로 이뤄진다.

공식행사의 여는마당은 마실축경연대회와 샌드아트, 개막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닫는마당은 마실대동환마당으로 흥겨운 추억의 댄스댄스 등으로 이뤄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최고의 마실을 찾아리와 마실체험! 현장 속으로, 마실 춤퍼레이드경연대회 등이 흥겨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실보물마당·마실휴식마당·마실놀이마당·마실구경마당·마실주제마당 등 다섯마당 프로그램과 마실일인음악회, 불날의OST, 위도따뜻놀이 재연, 마실 온 워터 컬러마당, 2023 세계잡버리를 잡아라, 별빛마실 등이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거리공연은 버스킹과 플래시몹, 전국우수농과 공연, 마실유랑극단 등이 준비돼 있으며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2019 부안 음식 맛 축제와 부안마실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내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부안을 매창공원을 주 축제로 부안군 전역에서 열린다.

투어버스, 전국농악경연대회, 딸기수확체험, 부안 마실길 걷기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축제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진화·발전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기존 축제의 명칭에 오복과 마실의 중복 사용으로 대표적인 축제 이미지에 혼선이 있어 제정위원회와 관광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제테마를 '마실'로 통일해 축제 명칭도 부안마실축제로 변경했다.

또 '마실'이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해 부안만의 독특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 문화자원을 축제장으로 옮겨와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주 축제장인 매창공원의 정장을 최대한 활용한 헛터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관광객들이 다양한 부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부회와 및 일반음식점 등 먹거리 메뉴를 다채롭게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가정의 달 기념 최대 40% 할인 대잔치

농특산물 온라인마켓 1번지인 단풍미인쇼핑몰이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특별이벤트를 갖는다.

단풍미인쇼핑몰은 바쁜 일상에 쫓겨 있고 지내온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건강할 우리 먹거리 상품을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가정의 달 이벤트는 입점상품 2~3가지의 기념일 특성에 맞게 꾸러미 방식으로 구성,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과격적으로 할인한다.

시 관계자는 "손주를 향한 외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정겨운 텃밭과 정음 농특산물의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한 단풍미인쇼핑몰만의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단풍미인쇼핑몰은 2012년 1월 9일

오픈, 올해로 8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4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02개의 업체가 입점, 800여 개의 상품을 갖추고 있다. 고품질의 상품과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지자체운영 농특산물 쇼핑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풍미인쇼핑몰에 입점된 상품은 품질과 포장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다. 모든 구매 상품은 우체국 안전배송 서비스로 배송할 예정이다.

상품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 (http://danpoongmall.jeongeup.go.kr)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mall.com)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창공愛 GREEN 드론의 모든 것

내일부터 이틀간 정읍 드론 페스티벌 열려

전시·코딩·레이싱·인형 뽑기 등 다채

정읍시가 내일부터 이틀간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서 '정읍 드론 페스티벌'을 연다.

드론 페스티벌은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관광객과 시민 등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 기간에는 드론 경진대회와 드론 비행 운전, 드론 관련 전시, 드론코딩, 모형비행기 만들기, 드론 인형 뽑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4일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푸른 창공을 가르는 드론 에어쇼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초청가수 김태우와 닐로의 축하 공연도 열린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야외에서 영화 '원더'가 상영된다. 또 페이스페인팅과 키즈라이더기, 추억의 오락실 체험, 비눗방울 버블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 부스와 간식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드론에 관심이 있었지만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 등이 대회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해 방문객 불편은 최소화하고 감동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원협 등 기관·시설 방문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은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정읍원협, 산림조합, 순정축협, (주)세움 등 기관·시설 4개소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대건 정읍원협조합장과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고창인 순정축협조합장, 이석길 (주)세움 사장 등을 차례로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읍원협조합장과 간담회에서 최의장은 "정읍 참외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작목반을 구성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고, 정읍산림조합장과 만남에서는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임야수종 갱신 시 능가 희망수종이 식재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순정축협조합장과 간담회에서 최 의장은 "한우 경매장 및 친환경 퇴

비장장 신축은 부지확보가 우선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주)세움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디젤 차량 중 2014년 이전 출고된 차에 대하여 세움에서 생산한 배기가스 저감장치(미세먼지, 소음 등 80% 분해)를 구입, 노후 경유차량에 부착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최 의장은 (주)세움과 정읍시 간 협력과 상생의 역할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낙삼 의장은 "정읍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기관·시설 및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다양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밑거름으로 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대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